

# Corset의 Supra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고 영 아 · 최 현 숙\*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 Fashion Design for Applying Supra Syndrome of Corset

Young-A Ko · Hyun-Sook Choy\*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s University\*

### ABSTRACT

Since fashion is considered to be a cultural product and belongs to the formative art as well, the changes in fashion reflect those of society.

Modern fashion has emerged from the period when people would follow the popular fashion uniformly, and moved toward the age of diversity, expressing not only the inner desires and aesthetic sensibility of individuals but also the freedom from formality and traditional restrictions. This kind of changes in expression became important motives for modern dress design following the present cultural phenomena, and, so called "outerwear-ization" of the undergarment or "infra apparel" exemplifies this situation.

Corset, especially has been playing a vital role in exaggerating and emphasizing the beauty of female body and correction of its shape. Today, one can frequently witness corset in street fashion along with brassier, its sister concept. This "outerwear-ization" of the undergarment is supplanted as a syndrome, and it is defined as "supra syndrome" using "supra" as the opposite meaning to "infra".

This unique phenomenon of modern fashion cannot be explained by a single social aspect, but as a mixed state of eroticism, fetishism, feminism, demonstrationists and expressionism among several current phenomena. The advent of "supra syndrome" and its cultural background were illustrated and stand-out "supra syndrome" exhibited by many world-renowned designer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study, six design pieces were developed and produced in three groups, based on different corset motifs.

This study reaffirms that creativity of design is limitless and the imaginative abilities alone cannot accomplish higher level of design and development of works of fashion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the understanding of historical background, periodical circumstances and cultural phenomena. In this study, utilizing the modern apparatus such as computer and the advent of the modern technology was also found helpful in creative fashion design process.

Key Words : Supra 현상, 겉옷화 현상(Outer-wear-ization), 속옷(Infra-apparel),  
문화적 현상(Cultural-Phenomena)

## I. 서론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고유한 미적 기능과 현실과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창조된다. 이는 예술이 그 시대의 반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상과 현실을 늘 새롭게 그리면서 나타내는 패션 또한 문화창조의 하나인 예술 세계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의 변화는 그 시대의 사회 변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풍미한 예술사조나 시대정신은 현대 의상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그 예의 하나로 속옷의 겉옷화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패션계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속옷의 겉옷화현상은 최근 패션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1994년 'Infra-Apparel'이라는 주제 하에 대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Infra-apparel이란 속옷을 가리키는 말로서, Infra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밑에' '아래에'란 뜻으로 되어 있다. 이를 국내의 소수 연구자들<sup>1) 2)</sup>은 속옷의 겉옷화현상을 'Infra현상'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속옷이 속에 머물러 있음을 뜻함으로 Infra현상과는 반대되는 용어로서 설명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Infra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위에'란 뜻을 가진 Supra란 단어에 주목하여 속옷이 겉옷으로 변용되는 현상을 본 연구자는 Supra현상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속옷의 Supra현상에 영향을 초래한 예술양식이나 예술사조들이 복식디자인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문화현상과 속옷의 Supra현상을 보인 복식이 갖는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복식을 문화현상과 연관지어 고찰하려는 현재까지의 동향은 그 대부분이 겉옷에 관심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겉옷의 맵시를 다루어

주는 속옷의 역할이야말로 겉옷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임을 고려할 때 속옷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수행 되어야 한다. 그 속옷 중에서도 코르셋이야말로 인간의 인체미를 과장, 강조하고 보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 street패션으로 흔히 볼 수 있는 Infra의상이 코르셋이라 보기에 속옷의 Supra현상 중에서도 코르셋의 Supra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으로 속옷의 정의와 기능, 종류를 고찰하고 그 중에서도 코르셋의 개념을 과거 코르셋의 형태와 오늘날 코르셋의 형태에 대해 비교 고찰함으로써 어떠한 문화현상들이 속옷의 Supra현상을 가져오는데 내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실제로 의상디자인에 어떻게 응용되고 표현되었는지 살피려 한다. 다음으로는 코르셋의 Supra현상을 보인 현대디자인자들의 작품을 분석보고자 한다.

이들 분석을 근거로 본 연구자의 창작품을 제작하였다.

## II. Supra 현상의 이론적 배경

### 1. Infra-apparel 이란.

Infra란 사전상의 의미로는 '밑에' '아래쪽에'로 Infra-apparel이란 밑에, 아래쪽에 입는 의상이란 의미로 속옷을 가리키는 말이다.

속옷은 언더가먼트(undergarment), 언더클로스(underclothes), 언더웨어(underwear)라는 의복으로 가시적인 겉옷 속에 여러 목적을 위해 착용하는 의복의 한 종류를 일컫는다.<sup>3)</sup>

속옷의 역사는 비록 겉옷보다는 짧으나 고대 크레타시대에 이어 중세부터는 더욱 활발하여 여러 형태의 속옷이 형성되고 변천되었다. 속옷은 겉옷의 변천에 따라서 만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속옷에는 생리위생상의 목적이나 생활적응상의 목적과 같은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 외형의 아름다운 실루엣 형성을 위해 미학의 기초 위에 걸옷을 보조하는 목적까지 더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속옷을 분류하여 보면 생리위생상이나 생활적응상의 목적을 위한 속옷인 언더웨어(underwear)가 있고, 보정용 속옷인 파운데이션 가먼트(foundation garment), 장식용 속옷인 란제리(lingeri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4)</sup>

Infra의상의 기능으로는 추위로부터의 신체보호, 걸옷의 형태유지, 신체의 청결유지, 속옷의 선정적 표현, 계층 표시의 방법을 들 수 있다.

## 2. 코르셋의 정의와 고찰

### (1) 코르셋의 정의

코르셋은 역사적으로 적시적소에 종잡을 수 없이 출몰하는 불가사의한 품목으로, 흉부에서 복부까지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 시대에 유행되는 의상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체형을 보정시키고자 사용되었던 여성용 기초 언더가먼트의 하나로서 코르셋의 제조방법이나 재료에 따라 불란서에서는 코르셋, 영국에서는 스테이즈(stays)라고 했다.<sup>5)</sup>

여성스러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코르셋은 신체를 보정하고 선정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여성들이 즐겨입던 속옷으로 그 형태나 재질이 시대마다 무척 차이가 많아 걸옷에 맞추어 꾸준히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르셋은 신체에 물리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주기 위해 허리에 부착된 형태로 꼭 조여진다. 그러면 코르셋의 압박에 의해 가슴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신체조형은 코르셋의 뼈대에 의한 수축으로 여성들이 허리를 너무 단단히 조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결단나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며 허리를 굽히면 코르셋이 파열되기도 하였다.

### (2) 코르셋의 역사와 종류

코르셋의 흔적은 B.C. 18세기 고대 크레타시대에 서 시작된다.

크레타에서는 남녀 모두 허리를 극도로 가늘게

조이기 위해 넓은 코르셋 벨트를 사용했다. 제일 처음 착용된 코르셋으로 보이는 크레타시대의 여인상에는 2~3 inch가량의 금속 조각들을 연결하여 만든 것<sup>6)</sup>이었으며 단지 허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12세기에는 그 시대의 삽화를 통해 코르셋이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sup>7)</sup>될 뿐이며 1347년 영국의 존(John)공주의 결혼 혼수에 대한 기록 중 'A double cothardie and corset'이라고 언급<sup>8)</sup>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중세에 코르셋을 입었으리라 짐작된다.

중세말기인 고딕시대에 와서야 코르셋과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이 시대의 코르셋은 속옷이 아닌 걸옷으로 착용되었다. 이는 코르셋 형태를 한 걸옷인 코르사주(Corsage)이다.

르네상스시대에서는 코르셋과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파딩게일(Farthingale) 등 육체미를 강조하는 실루엣의 과장은 16세기에 더욱 심해져 전성기 르네상스 양식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 시대에는 코르셋이라 부르지 않고 과장적인 의상형태에 따라 바스핀느(Basquine), 꼬르삐께(Corps-piqué)라고 불려졌으며 코르셋은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불여진 명칭이다.

바스핀느는 코르셋의 일종으로 허리를 인위적으로 조이는 정도가 고딕시대의 코르사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했다. 바스핀느는 허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까지 조이는 역할을 했으며 앞이나 옆, 뒤가 트인 몸통을 조이는 조끼형태이다. 바스핀느의 구성은 나무뿌리, 뿔, 고래수염, 상아, 금속 등의 재료로 해서 만든 바스끄(basque, busk, busc)를 두 겹의 린넨이나 울 사이에 넣고 촘촘히 누빈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해진 새로운 수법이었다.

꼬르삐께는 바스핀느보다 딱딱함을 보강시킨 것으로 1577년에 나타나 다음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여밈은 앞이나 뒤 중앙이며 끈으로 조여 땀다. 앞이 트인 드레스가 유행하자 꼬르삐께의 앞면 장식이 중요해져서 스토마커로 장식했다.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형태가 약간 변하면서 명칭도 함께 변화되어 프랑스에서는 꼬르발렌느(Corps-baleiné)라고 했고 영국에서는 스테이즈(Stays)라고 했다.

코르발렌스는 17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혁명 때까지 사용한 코르셋으로 면이나 린넨으로 두껍고 촘촘하게 짠 직물 사이에 고래수염을 넣어 만든 것이고, 고래수염을 넣은 바디스란 뜻으로 코르발렌스라고 하였다. 코르발렌스가 바스퀴느와 틀린 점은 바디스에 프린세스 라인처럼 소매로부터 앞 중심을 향해 사선으로 자르고 촘촘하게 바느질하여 합리적인 몸을 가늘게 보이게 만들었다.

로코코시대에는 슈미즈 위에 허리를 가늘게 하고 가슴을 부풀려서 아름답게 다듬기 위해서 코르셋을 착용했다. 가는 허리의 연약한 여성다움이 로코코의 낭만을 효과적으로 발휘한 것을 알고 여자들은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고통도 참아냈다. 이 시대의 코르셋으로는 코르발렌스, 발렌스 드 드레싸즈(baleiné de dressage), 코르 드미 발렌스(Corps demi baleiné) 등이 사용되었다.

발렌스 드 드레싸즈(baleiné de dressage)는 유방선과 같은 모양의 곡선으로 된 고래수염을 가슴부분에 수평으로 삽입시켜 곡선으로 다듬고 등에는 수직방향으로 직선고래수염을 집어넣어 판판하게 하여 이음선의 방향이 앞 중심을 향해 V자로 되게 하여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활동이 불편하였다.

코르 드미 발렌스(Corps demi baleiné)는 고래수염을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3~4cm 간격으로 중앙을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꿰맸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몸을 조이던 것을 말한다.

근대의 코르셋은 점차 개량되어 18세기 후기에는 허리를 가늘게 보이는 효과와 입어서 편안함을 겸하는 기술에 달하여 종래의 강한 압박을 없애고 체형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폴레옹 1세 시대에는 인위적 조형성인 코르셋의 중요성은 전 시대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1804년에는 high waist의 코르셋이 등장<sup>9)</sup>하기도 하였고,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를 선호하던 시대였으므로 긴 길이의 코르셋이 주로 사용되었다. 착용감이 좋고 스티치가 정교한 니농(ninon)형의 코르셋이 착용되었다.

왕정복고 시대에는 귀족 중심사회가 다시 재개되었으므로 로맨틱 스타일을 신 르네상스 스타일이라

고도 한다. 이와 더불어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한 코르셋이 다시 부활되었다. 코르셋은 신축성 있게 짠 능직의 면직물과 고래수염으로 만들었으며 이 시기에는 길이가 짧은 반(半) 코르셋 (demi-코르셋) 이 주로 사용되었다.

나폴레옹 3세 시대의 코르셋은 더욱 진보하였으며 1840년대부터는 신축성 있는 코르셋의 구성법이 연구되어 조각조각 맞추어 바느질함으로써 몸에 꼭 맞는 형으로 만들었다. 1847년에 특수한 고리가 고안된 후부터는 앞 중앙을 고리로 고정시켰고 뒤 중심을 끈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1870년 이후 bustle style이 유행하던 시대에는 가슴과 허리의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 삼각형의 거셋(gussets)을 붙이는 방법도 사용했다. 1890~1910년은 아르누보 스타일시대라 하며 이 시대의 코르셋은 1890년대 말에 이르러 허리에서 힙에 걸쳐 가늘게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 시대 코르셋 중에서 샤로뜨 부인의 건강 코르셋(health corset)은 의학적인 코르셋으로 주목을 끌었다.

1907년에서 1930년까지를 아르데코 스타일 시대로 보며 이 시기에는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간편하고 느슨한 형태의 코르셋과 브래지어를 착용했다.

1947년 2월 12일에 개최된 Christian Dior의 여성스러운 뉴 룩(new look)은 과거 수백 년 전에 사용되었던 코르셋의 재등장을 가져왔으며 신체를 조형하는 패션이 복귀되었다.<sup>10)</sup>

20세기 후반의 코르셋은 아주 의식적이고 결정적으로 옷과 관련된 디자인 개념인 것이다. 코르셋은 역사 속에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사이를 넘나 들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의복들은 속옷을 겉옷화하거나, 디테일의 장식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전환시키고, 또는 전혀 엉뚱한 소재를 의복의 한 부분으로 전위시켜 사용함으로써 기존복식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코르셋의 착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식을 반영하는 의복의 실루엣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런 이유가 Supra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Ⅲ. Supra현상과 관련된 문화현상

20세기에는 새로운 예술 운동이 범람하고 있지만 대표할 만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지 않고 다만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로 전통적인 장르가 혼합되거나 붕괴되는 현상으로 예술의 개념 그 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복식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과거의 모든 양식들이 혼합된 이른바 카테일 효과(Cocktail Effect)<sup>11)</sup>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 연구에서 예술학적 또는 미학적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는 무척 어렵고 애매모호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 복식현상의 하나인 Supra현상 또한 예술사조를 들어 설명하려할 때 하나의 예술사조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문화현상들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다양한 복식 문화 현상 중에서 특기할 만한 코르셋의 Supra현상이 발생하는데 미학적, 정신적 근원으로 작용한 문화현상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에로티시즘 (Eroticism)

일반적으로 에로티시즘(Eroticism)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에로스(έρος)라 보며 에로스는 포괄적 개념으로써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주로 육체적인 사랑 즉 性愛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에 와서 에로티시즘을 뜻하는 erotic이라는 말은 성적인 것에 국한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을 어느 하나의 개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에서 성적인 것으로의 결합으로 사회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인간존재의 핵으로서 작용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정의 내리려 한다.

근간의 패션의 다양한 흐름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의 하나가 새로운 인체미학, 에로티시즘의 표현을 들 수 있다.<sup>12)</sup> 다시말하면 인간의 성에 대한 내면적 욕구가 의상으로 표출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여성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욕구를 의복에 표현하여 복식미를 형성하였고 따라서 각 시대에 따라 성과 인체개념이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복식미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에 작용하는 에로티시즘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복식과 관련되는 에로티시즘을 유발시키는 기계로써 새디즘, 매저키즘, 나르시즘, 보이어리즘, 페티시즘이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코르셋의 Supra현상과 연관된 페티시즘에 대해서만 다음 장에서 다루어보려 한다.

복식에 사용되는 에로티시즘 양식을 살펴보면 관능성, 자연성, 원시성, 상징성 등이 있으나 코르셋의 Supra현상의 에로티시즘적 측면은 관능성이 가장 뚜렷한 양식이다. 관능성을 복식에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신체의 노출, 가슴, 허리, 엉덩이에 이르는 과장된 실루엣, 화려한 장식의 틈 사이로 드러난 맨살 등으로 에로티시즘 양식을 표현하였다.

이 코르셋의 착용이 현대로 이어져 속옷으로서만이 아니라 겉옷으로서 착용된 것 또한 현대사회에 만연된 에로티시즘의 영향이 아닐 수 없다.

#### 2. 페티시즘(Fetishism)

페티시란 말은 마술적 매력(Magic Charm)의 의미로서 조각품, 인공물, 외관과 표식을 위한 모든 것을 뜻한다.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처음 등장하여 19세기 후반에 성적인 현상으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sup>13)</sup> 오늘날 페티시즘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잠재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광범위한 범위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용모나 옷, 음성, 체취 등에 매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보수 성향의 증가로 인하여 페티시스트들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패션주류에 아직 페티시요소들은 남아있어 또 다시 절정에 달했으며 페티시 패션이 유행을 추구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스타일 요소(style factor)로서 인정되

었다. 이런 요소들이 각종 코르셋, 가죽, 고무, 모피나 새틴 소재의 옷, 길고 밀착된 스커트, 찢어진 의상, 지퍼 달린 부츠 등이 페티시한 의상들에 채택되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페티시즘이 현대 패션에서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페티시즘이 더 이상 개인의 성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해서 가시화하기 때문이며 페티시즘과 관련된 물건과 이미지가 패션으로서 표면화되기 때문이다. 패션에 표면화된 의복아이템 중에서 페티시즘이 가장 현저하게 그 특질을 지닌것은 코르셋이다.

코르셋은 우선 여성의 코르셋과 남성의 코르셋으로 나눌 수 있다.

18세기 유럽에서 페티시스트들은 매우 타이트한 코르셋 류를 착용함으로써 압박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육체적 쾌락을 맛보았다고 했다.<sup>14)</sup>

19세기 후반에 성적인 현상으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sup>15)</sup> 오늘날 페티시즘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는 것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정도차이가 있지만 잠재적으로 이 경향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광범위한 범위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용모나 옷, 음성, 체취 등에 매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David Kunzle에 의하면 19세기 성적으로 개방되었던 여성 페티시스트에 대한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테마는 남성들의 코르셋 착용이었다.

Fakir Musafar은 신체수정에서 독보적 존재이며 대표적인 남성 코르셋 애호가이다. 그는 오늘날 코르셋을 착용하는 사람들을 코르셋 비동조자들(Corset Nonconformists), 코르셋 순응 주의자들(Corset Identificationists), 코르셋 매조키스트들(Corset Masochist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16)</sup> 코르셋 인정자들은 코르셋을 여성다움의 상징으로 보고 상습적으로 착용하지만 몸매를 가꾸는데는 무관심하다. 대부분의 남성코르셋 애호가들이 이 범주에 속하며 오늘날 코르셋의 Supra현상도 이에 속한다고 본다.

### 3. 페미니즘 (Feminism)

일반적으로 여권확장론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페

미니즘이란 단어는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게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최근 서양문화의 전통적으로 가장 지속적이고 영향력있는 비평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여성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sup>17)</sup>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여권확장론, 남녀동질론 등의 역어로 라틴어의 'femina(여성)'에서 생긴 말로 문학을 비롯한 예술, 종교 매체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발생론적 차원에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지니는 까닭에 단일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다원주의적인 해석과 시각이 요구된다.<sup>18)</sup>

페미니즘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여성과 세계가 상호 관련을 맺는 모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들 중 특히 패션은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여성성(femininity)를 발현한다는 점에서 초창기부터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 페미니즘은 남녀동질론을 페미니즘의 본 의미로 보았으며 남녀평등이란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세계 제2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여성복에 남성복을 차용하면서 오늘날 매니쉬 룩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초기의 페미니즘은 70년대 후반 남녀이질론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페미니즘으로 기울면서 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성(性)을 'sex'보다는 'gender'로 여기는 사회 문화적 페미니즘은 패션에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낳았다.<sup>19)</sup>

남녀동질성을 주장하는 초기 페미니즘과 맥락을 같이하는 여성해방운동은 여성복식을 기능화와 남성화라는 변화추세로 이끄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 뒤이어 남녀이질론이 대두되는데 이는 등근 어깨선과 넓어진 스커트 폭에 의한 뉴 룩(New Look)에서 보여주듯이 여성패션을 다시 여성적인 것으로 복귀시켰다.

복식에 있어서 복식사상 가장 선정적인 스타일이 1970년대 말에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매력을 표현하는 섹시 모드로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주체성이 나타난 것이다. 선정적인

스타일은 6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페미닌 모드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으나, 내용과 표현이 전혀 바뀐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이 의복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은 점차 파운데이션가먼트나 언더웨어를 기피하는 경향과 병행하여 오히려 반대로 소멸되어 가는 속옷이 겉옷으로 에로틱하게 나타나는 패션의 현상은 본질주의적 페미니즘이 여성의 의식에 준 자극에 의한 것이다.

페미니즘의 한 분류인 대사발 스타일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여성의 섹시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질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코르셋의 supra현상 또한 이 본질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4. 해체주의 (Deconstructionism)

1960년대에 널리 확산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자아나 주체,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sup>20)</sup>

데리다의 해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것이며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sup>21)</sup>

1960년대 전까지 복식은 특정한 시간대, 주변의 타이틀, 형식적·비형식적 공간, 사회계급과 환경 등의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구별되어왔다. 그러나 해체주의 복식은 이러한 규범을 해체하고 있다.

해체주의가 복식에 나타난 형태구성상 특징으로는 노출-폭로적 표현, 파괴-빈곤적 표현, 분해-분석적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노출-폭로적 표현은 속옷의 겉옷화로 나타나는 란제리룩, 브라, 코르셋, 슬립, 페티코트가 외부에 노출되어,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붕괴되고, 전통미와 퇴폐미,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양면가치를 통해 새로운 미의 개념에 부합되면서, 세기말적 데카당스(decadence)한 해체를 나타낸다.

복식의 파괴-빈곤적 표현은 사회적 저항의 표현이었던 펑크 룩에 기원하여 옷을 일부러 파괴하고 찢음으로서 전통적 예절과 실용성을 거부하는 동시에 은폐와 노출의 애매성을 제시하며, 파괴를 위한 파괴로 나타난다. 복식의 빈곤은 반 모드를 기원으로 하는 프랑스 혁명기의 아방가르드 모드, 남루함과 빈곤의 진실미를 추구했던 히피, 그레머스 룩, 그린지 룩에 이르며, 미완성의 미학을 이룸으로써 보다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진실된 빈곤함이다.

분해-분석적 표현에서 복식의 분해는 의복을 분해 분석함으로서 의복의 내적인 의미를 찾고 의복이 물리적으로 무엇인지 실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작업으로서 표면상 부분적, 조각적, 파편적으로 보이지만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공간에 붙여진 것들로 인해 구조가 뚜렷해지고 지적 정수를 이루게 된다.

요컨대 해체주의 복식은 남녀, 동서양, 지위,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연령, 시간과 공간, 미와 추를 구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켜, 이것이 형이상학 혹은 전통적인 미적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미적으로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르셋의 Supra현상은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0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외부로부터의 해체에 의한 노출현상은 '속옷은 당연히 겉옷 내부에 착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동시에 전통미와 퇴폐미,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금욕주의와 섹슈얼리티의 이분법적 해석을 부정하는 해체주의적인 표현인 것이다.

#### 5. 표현주의 (Expressionism)

표현주의는 극단적인 번영과 평화의 시대로부터 분열과 파괴로 이뤄지는 혁신적인 사회 상황 속에서 종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정신적 위기의 시대이자 예술적 활동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20세기초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사회와 정치의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 원초적 이상세계의 동경, 그리고 지고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린 표현주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존립을 증시하는 인문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복식의 경향은 사회적 리얼리티와 관련한 새로운 시대적 요청으로 현실상황을 반영한 개혁의상과 변화하는 미의식에 의해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는 구조주의적 의상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많은 복식들은 속옷을 겉옷화 하거나 디테일의 장식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전환시키고, 또는 전혀 엉뚱한 소재를 복식의 한 부분으로 전위시켜 사용함으로써 기존복식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변용과 전위에 의한 표현 방법으로 불어오는 데빠이즈망(Depaysement)이라 한다.<sup>23)</sup>

복식 조형에 있어서 변용과 전위에 의한 표현 방법은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복식의 항목들의 위치와 용도 변경에 의해 충격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표현방법을 들 수 있다. 현대패션에 보여지는 용도 변경에 의한 변용과 전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속옷이 겉옷으로 대치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속옷의 겉옷으로의 전위는 본래 그것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않고 뜻밖의 장소에 이용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을 주게되는 일종의 위치변경에 의한 의외성에서 오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속옷의 일종인 코르셋 또한 현대에 와서 이런 전위와 변용으로 사용되었다.

#### IV. 코르셋의 Supra현상을 응용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기존복식의 전통에 도전하는 것으로 현대의 몇몇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역사, 문화현상 속에 존재해 온 코르셋을 탈선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코르셋으로 재치와 유머, 유쾌함으로 변용하였다. 이러한 아이러니와 예리한 지성은 코르셋을 재인식시키는데 효과적인 모드로 앞서 II, III에서 언급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여러 패션컬렉션 전문 잡지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코르셋의 Supra현상은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는 코르셋이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의상임을 그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여러 디자이너들 중에 Jean-Paul Gaultier, Gianni Versace, Thierry Mugler, Chantal Thomass, Vivienne Westwood, Dolce & Gabbana 등의 작품 중에서 코르셋의 Supra현상을 보인 작품을 살펴보면 그 밖의 디자이너들로는 우리 나라의 홍미화를 비롯하여 Christian Lacroix, Gattinoni, John Galiano, Louis Feraud, Christian Dior, Emmanuel Ungaro, Givenchy, Moschino, Lolita Lempicka, Chloe, Fendi 등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어떠한 미적인 요소를 특징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자 한다.

##### 1. 디자이너와 작품세계

패션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는 기성가치의 현대적 전환 작업을 시도하여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이다. 장 폴 고티에는 뉴웨이브의 기수이며 새로운 가치관의 창조에 몰두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대에는 옷차림의 규범이 분열, 혼돈되는 시대로 일정치 않은 여러가지 스타일이 주장된다. 속옷의 겉옷화는 고티에가 즐기는 레퍼터리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그는 섹스어필에 관심이 높았으며 그의 섹스어필을 말할때 마돈나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림 1은 마돈나가 고티에의 코르셋을 입고 무대에 나온 유명한 사진 중의 하나이다. 마돈나의 스타이지의상을 보면 코르셋처럼 그대로 일때가 많다. 마돈나에게 있어 코르셋은 속옷이 아닌 겉옷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는 속옷의 겉옷화현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인 것이다.

그의 코르셋은 컬렉션에서 선보일때에 그것을 속옷으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옷으로 제안하며 섹스어필을 노리는 코디네이션의 액세서리로써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림 1> Jean-Paul Gaultier 작

여성의 육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옷은 다름 아닌 언더웨어인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옷으로부터 육체의 해방을 부르짖은 폴포와레에 의해 추방된 코르셋을 다시 등장시켜 그것으로 육체를 감싼 장 폴 고티에, 그것도 은폐가 아닌 적극적인 노출의 도구로써 코르셋을 활용했다는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티에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향수병에 까지 코르셋을 입혀 여체를 재현시키기도 하였다.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은 아티스틱하고 섹시얼리티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의 패션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미지나 형태, 용도, 시차에 따른 컨트라스트 기법을 잘 쓴다는 점이다. 현재와 과거의 혼합, 장식과 절제, 전통고수와 무시, 즉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나 현상을 하나로 믹스시켜 창조하는 파라독스가 지아니 베르사체 패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섹슈얼리티한 작품으로는 코르셋의 현대복식으로서의 응용을 들 수 있다.

그림 2는 코르셋 가운(corset gown)이라 하여 코르셋을 응용한 하나 전형적인 코르셋의 라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회고적인 패션이 주체인 파리모드 속에서 티에리 뒤킴리의 작품은 미래를 지향하는 스타일로 한층 눈에 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옷이 인공적으로 보이거나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은 디자인 발상의 인스피레이션을 미래에서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그림 2> Gianni Versace 작



<그림 3> Thierry Mugler 작



<그림 4> Chantal Thomass 작

클래식의 전형이거나 회고적 테마까지도 미래지향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의 디자인에는 자극을 가함으로써 쾌감을 맞본다. 또한 모험과 충격이 없는 그의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며 일상의 틀과 상식을 벗어나거나, 때로는 극단적이고 인위적인 과장을 통해서 또는 과감하기 이를데 없는 노출을 통해서 모험을 즐긴다. 그의 작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섹스 어필도 일종의 모험신의 발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디지 룩(Bondage look) 또한 바디를 줄라맴으로 해서 성적충동을 유발시킨다

상탈 토마스는 속옷의 걸옷화 현상을 90년대 패션에 빼놓을 수 없는 빅 아이템 중의 하나로 디자인한 디자이너이다. 그는 란제리 룩(Lingerie Look)이나 데샤빌 스타일(Deshabille Style)분야에서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란제리룩은 매 시즌 그녀의 컬렉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품이 되었다. 그녀가 제안하는 란제리룩은 약간 과격하고 대담한 데가 없지 않으나 입는 사람의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하여 입을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녀의 디자인은 속옷의 걸옷화를 주장하는 다른 디자이너와 달리 언더웨어의 디테일이나 아이템 등을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제안이 많다. "섹스 어필이 무시된 여성스러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그녀의 옷은 언제나 섹시하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드는 본디지(Bondage·속박, 새디즘)패션의 창시자로 그녀 역시 섹스어필을 주도하였으며 이런 본디지패션은 1970년대 당시에는 일부 섹스숍에서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인스피레이션은 언제나 과거로 부터 발췌된 것으로 그녀의 버슬이나 코르셋패션 역시 여기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비안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스매치의 명수로 형태나 시대와 지역, 민속성에 관계없이 이질적인 것을 잘 매치시켜 고갈된 현대패션의 돌파구를 미스매치에서 찾고 있다. 「역사나 문화를 혼합시킴에 따라 새로운 감각으로 옷을 만들수 있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그녀는 89년 춘하 컬렉션에서부터 코르셋을 등장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림 5〉 Vivienne Westwood 작

돌체 앤 가바나는 도미니코 돌체(Domenico Dolce)와 스테파노 가바나(Stefano Gabbana)가 만나 만든 브랜드로 그들 역시 디자인의 모토를 섹스어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의 창조는 자유발상에 기초를 두고 비일상적인 재미난 디자인을 만들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스타일에는 옷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트랜스포미즘(Transformism·변신)의 묘미와 순수한 감성이 감돌고 있다.

패션은 다른 순수예술과 달리 전통을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 과거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주장할 수 없다.

돌체 앤 가바나의 디자인에는 상식과 룰이 존재



〈그림 6〉 Dolce & Gabbana 작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옷이 겉옷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섹서어펠의 모토로 내세우는 그들에 있어서 속옷의 겉옷화는 더할 나위 없는 표현수단의 하나이다.

돌체 앤 가바나는 생활속의 옷이 아닌 비밀상성을 일상의 패션에 믹스시켜 제안하길 좋아한다. 그들은 비밀상의 이미지 때문에 유명해 질수 있었으며 돌체 앤 가바나의 대명사가 되다시피한 언더웨어의 아우트 웨어화도 비밀상의 일상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과거의 패션을 현재의 패션으로 제안하는 것도 비밀상의 제안인 셈이며 코르셋이라는 과거의 패션을 현재의 패션에 제안하는 그들은 비밀상의 것으로가 아닌 일상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티앙 라크로와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 전통, 유행, 환상 등이 훌륭하게 융합되어 새로운 라크로와를 만들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는 전통적인 코르셋 중에서도 꼬르발렌스를 응용한 작품이 있으며 드레시한 스커트와 가미시켜 코르셋이 드레스로 Supra현상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버스크(busk)를 사용하고 뒷중심에서 끈으로 조이는 전형적인 코르셋을 그대로 겉옷화한 것도 있다.

아즈뎡 알라리아(Azzedine Alaia), 로리타 렘픽카(Lolita Lempicka), 잔 갈리아노(John Galliano), 가티노니(Gattinoni), 프랑코 모스키노(Franco Moschino),



〈그림 7〉 Christian Lacroix 작

플로에(Chloe), 펜디(Fendi), 자크 파트(Jacques Fath), 지방시(Givenchy), 그리고 우리나라 디자이너 중에서 홍미화, 송지오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작품 중에서 코르셋의 Supra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코르셋 응용작품의 분류체계

앞장에서 제시된 현대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기본적으로는 코르셋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응용 또는 활용되었는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1)코르셋의 형태를 그대로 일상복으로 응용한 작품, (2)코르셋의 디테일 아이템을 액세서리로 활용한 작품, (3) 코르셋을 다른 의복 아이템과 결합시킨 작품, (4)코르셋의 장식적 겉옷 기능에 중점을 둔 작품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주는 현대의상에 일부분만을 응용 일상복과 조화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겉옷 위에 다시 코르셋을 착용하여 겉과 속이 바뀐 트랜스포미즘의 전형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속에 있을 코르셋이 겉으로 나와 입혀진 경우 이면서 속옷과 같이 보이는 코르셋이 아닌, 겉옷화된 코르셋으로 이 또한 코르셋의 Supra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범주는 코르셋을 응용한 작품을 조형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코르셋의 실루엣이 현대복식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번째 범주의 조형적 분석은 일상복의 겉옷으로서 코르셋이 아닌, 그저 장식적인 코르셋의 라인만을 사용하여 Art to Wear와 같은 느낌을 주는 아방가르드한 작품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V. 디자인 및 제작

현대의 코르셋은 은밀한 사적 영역과 외부로 보이는 공적 영역을 넘나들고 있으며 이는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코르셋이 가시적인 의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正)의 개념으로, 코르셋이 속옷으로서의 반(反)의 개념으로, 그리고 현대의상에서 코르셋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장식적이고 화려한 겉옷으로 나타남을 합

(合)의 개념으로 이해<sup>23)</sup>할 수 있다. 이런 정반합(正反合)의 개념에 기초하여 코르셋의 Supra현상을 응용하여 의상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현대 복식의 조형성을 인체라는 제한된 틀로부터의 표현 가능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하에, 새로운 공간형을 획득함으로써 복식디자인과 공간 개념의 접목으로 복식 조형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로서 작품1과 작품2는 2차원적인 평면, 즉 직물에 의한 조형작업이 아니라 소재의 다양성을 이용한 1차원적인 선의 연속성, 방향성의 변화 및 이들의 조합으로 3차원적인 복식미를 창조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3과 작품4는 코르셋의 신체 보완적인 측면을 살려 디자인한 작품으로 코르셋의 Supra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아이템의 하의들과 함께 착용하였을 때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우수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으로 보여주고 있다.

복식은 인간의 미의식과 개성적 표현을 반영하는 매체로서 현대의 복식디자인은 단순한 구조를 거부하고 표현 매체를 다양하게 도입하여 새롭고 입체적인 조형미를 유출해 내기도 한다. 작품 5와 작품 6은 이런 새로운 표현매체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작품의 모티브로 코르셋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패션잡지에서 선택하여 겉옷과 코르셋을 동일공간 진행(homospacial process) 방법에 의해 결합하여 디자인을 유추해 보았다.

동일공간 진행이란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실체들을 심리학적으로 동일공간에 위치시켜 적극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정체를 유도하는 개념"이다.<sup>24)</sup>

지금까지 동일공간 진행 실험은 두 개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스크린에 투사하여 중첩된 실체를 얻거나 사진기의 이중노출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진의 합성을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시켜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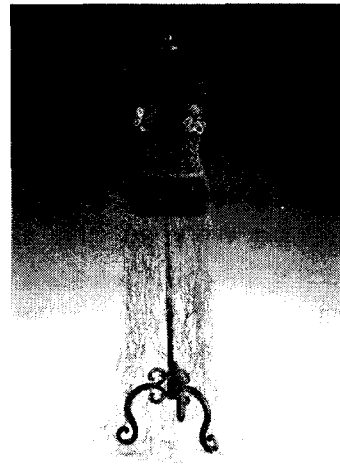
<작품 1>

- 구성 : 태피스트리(tapestry)기법을 이용한 코

르셋의 실루엣을 한 조형 작품

- 소재 : 사이잘 삼
- 색상 : 핑크(Pink), 크림(Cream), 연두색
- 기법 : 싱글 트위스트(Single Twist), 스퀘어 노트(Square-Knot)

· 해설 : 본 작품은 여성의 육체의 아름답고 조형적인 곡선을 강조하였고 가장 여성성적인 색상이라 생각되어지는 핑크색을 사용하여 코르셋의 실루엣을 가지도록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이작품은 작품을 준비하던 중 가야미디어 주최 브라디자인 컨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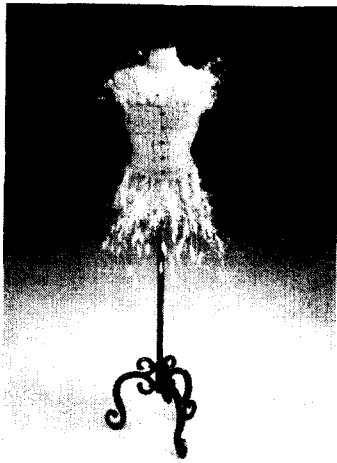
<작품 1>

<작품 2>

- 구성 : 바스켓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법을 이용한 코르셋의 실루엣을 가진 조형 작품
- 소재 : 대나무, 등나무, 강아지풀, 말린 들꽃, 버스크(Busk).

- 색상 : 자연그대로의 색상
- 기법 : 평직(Plain Weave), 바구니의 끝처리 기법
- 해설 : 서양의 바구니(Basket)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법을 기용하여 코르셋의 실루엣이 되도록 디자인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다아트나 옆선없이 육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평직으로 바디에 놓고 직접 짠으며 앞 중심은 버스크(busk)로 앞에서 열릴 수 있도록 중첩아래부분은 등나무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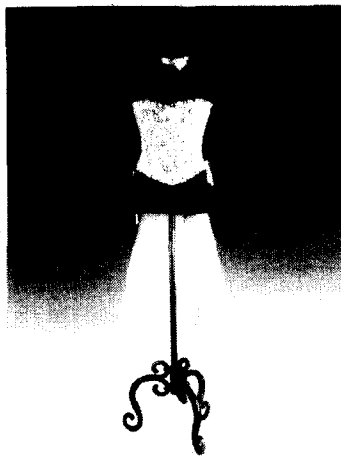
대로 늘어뜨리고 자연친화적이며 예술적인 작품성을  
가미하기 위하여 강아지풀을 거꾸로 달아주었다.



<작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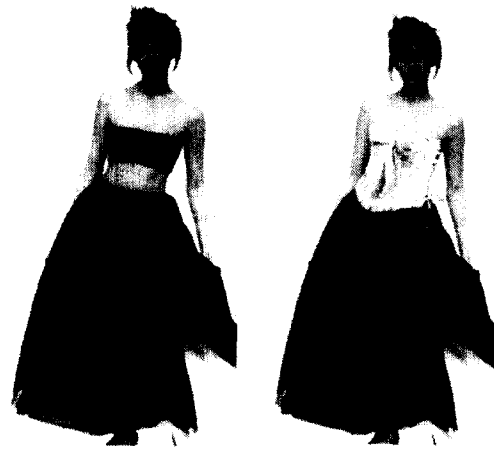
<작품 3>

- 구성 : 코르셋의 라인을 한 탑(Top)
- 소재 : 레이스(Lace), 노방 비즈(Beads), 아이  
렛(Eyelet), 스파이럴 와이어(Spiral Wire)
- 색상 : 흰색(White)
- 기법 : 바느질(Sewing).
- 해설 : 코르셋의 라인을 가진 탑의 아이템  
(Item)으로 디자인한 작품으로, 레이스를 사용하여  
에로틱한 분위기를 주기도 하지만 청바지나 캐주얼



<작품 3>

한 진,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는 의상이 되도록 디자  
인에 포인트를 맞췄다.



<작품 3과 하의 아이템과의 computer simulation>

<작품 4>

- 구성 : 코르셋의 라인을 가진 블라우스
- 소재 : 새틴(Satin), 버스크(Busk), 스파이럴(Spiral),  
코르셋 본(Corset Bone), 본 케이싱(Bone Casing)
- 색상 : 검정(Black)
- 기법 : 바느질(Sewing).
- 해설 : 코르셋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가  
슴라인 윗부분만을 덧붙여 일반적인 소매 없는 블  
라우스가 되도록 디자인에 포인트를 맞췄다.



<작품 4>



<작품 4과 하의 아이템과의 computer sim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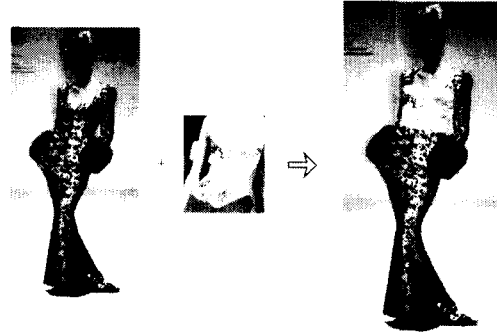
<작품 5>

- 구성 : 투피스(Two Piece)
- 소재 : 실크 자카드, 후크(Eye Hook), 스파이럴(Spiral), 코르셋 본(Corset Bone), 자바라 테이프, 본 케이싱(Bone Casing)
- 색상 : 아리보리(Ivory), 금색(Gold).
- 기법 : 바느질(Sewing)
- 해설 : 패턴은 허리선까지 코르셋의 라인을 그대로 살렸으며 넥크라인은 아름다운 가슴선이 보일 듯 말 듯 하게 파서 세미 돌먼 슬리브(Semi-Dolman Sleeve)를 달아 여성스러운 어깨라인을 나타내도록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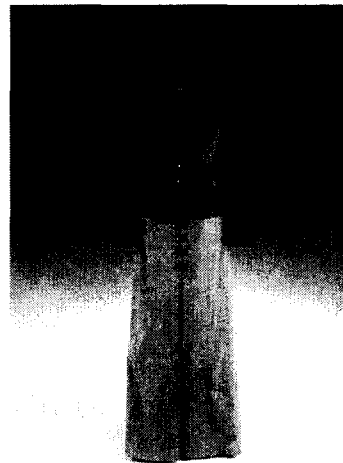
더욱 강조하였다. 허리선 아래로는 페플럼을 약간의 플레어 라인이 되도록 하였다. 스커트는 머메이드 실루엣이 되도록 고어드 스커트로 구성하였다.



<작품 5의 디자인 유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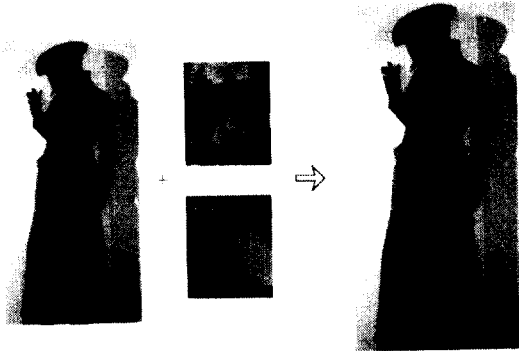
<작품 6>

- 구성 : 코트(Coat).
- 소재 : 스웨이드(Suede), 걸고리(Hook)
- 색상 : 세피아(Sepia), 올리브 그린(Olive Green), 회색빛의 브라운(Gray Brown), 와인색(Wine Color), 황토색(Yellow Ochre).
- 기법 : 바느질(Sewing), 장식 스티치
- 해설 : 중힙 아래부분까지 코르셋의 라인을 그대로 살렸으며 앞여밈은 철제고리를 사용하였고, 넥크라인(Neck Line)은 V-넥크로 하되 목의 상부에서는 높이 세워지는 칼라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6>

소매는 가슴선 윗부분은 세피아 색상의 단색으로, 코르셋 라인 아랫 부분은 황토색의 단색으로 하여, 바디스의 부분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코르셋 실루엣이 더욱 눈에 띄게 강조되도록 대조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작품 6의 디자인 유추과정>

## VI. 결 론

20세기에 즈음하여 패션의 변천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전개되어 갈 것이다.

21세기의 패션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사회의 문화현상들을 연구하고 그 내용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패션의 흐름은 역사적 사건이나 과거의 복식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다수의 것들이 전에 사용되었고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받아들여 입혀졌었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유행하게 될 것이다. 겉옷에 못지 않게 속옷의 변천 또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속옷은 겉옷의 아래에 착용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신체보호, 겉옷의 형태유지, 신체의 청결유지, 선정적 표현, 사회계층 표시의 방법 등의 기능을 가진 반면, 현대에 와서는 겉옷으로서의 기능과 결합되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겉옷화현상을 Supra현상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동인이 되는 문화적 현상들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현상들이 Supra현상들

을 낳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인 디자인기법과 다양한 영상매체를 사용하여 코르셋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여섯벌 제작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제시한 여섯 점의 작품에 있어 그 특이성은 첫째, 코르셋이 현대예술의 추이와 비추어 볼 때 작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예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둘째,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코르셋이 다른 겉옷과 함께 착용되었을 때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색이 없이 우수할 수 있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을 이용하여 입증할 수 있었으며 셋째, 입체적인 조형미를 유출해 내기 위해 동일공간 진행(homospacial process)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디자인을 유추해 보는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로 코르셋은 현대에 와서 속옷의 기능에 겉옷으로서의 기능을 더해 오고 있으며, 여성의 조형적인 육체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21세기에 적합한 시대적 이상이라면 코르셋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유행되리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디자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 디자인 연구에서는 코르셋을 속옷과 겉옷에 제한을 두지 말고 디자인의 무한성에 도전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조형적인 육체를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 개발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본 여섯 점의 작품을 통해 도출해 본 결과, 디자인의 가능성과 창조성은 디자이너의 노력 여하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새로운 디자인 창조는 단지 상상력의 발휘만으로는 이루어지기는 힘들며 특정 패션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문화현상들을 고찰하고 현대문화의 이기인 3차원적인 컴퓨터 기법이나 VTR 자료 같은 영상매체 등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보다 창조적인 패션 디자인의 전개와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격상 디자인 유추과정에서 영상매체를 포함한 컴퓨터나 멀티미디어의 정보뿐만 아니라 홀로그램같은 상황재현의 도구를 응용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정보화사회가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현실의 과제로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을 본인의 후속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정화, 「현대패선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의상디자인전공 석사논문, 1993.
- 권미정, 「의상디자인의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가정학과 의류학전공 박사논문, 1993.
- 김원갑, 「현대건축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주애, 「여자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논문, 1985.
- 백은미, 「20세기 전반기 서양 여자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미술학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논문, 1994.
- 송명건, 「고대 크레타인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 同大論叢, 1981.
- 오경숙, 「Undergarment의 변천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985.
- 윤진아, 「근세시대의 서양여자속옷에 관한 고찰 : 스토마커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임윤,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논문, 1995.
- 전해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논문, 1993.
- 정복희, 「서양복 내의의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논문, 1986.
- 최원, 「서양 여자속옷(Underclothes)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속옷의 걸대화"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학과 석사논문, 1995.
- 김지연·전해정,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997. 5.
- 이의정, 양숙희, 「패선에 반영된 페티시즘 연구-콜렛과 슈즈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1호, 1997. 2.
- 이문희, 「언더클로스考-서울시내여자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제9호, 1985.
- 채금석·양숙희,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한국복식학회지 24호, 1995. 5.
-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I)-코르셋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1996.
- Anne, L. Hollander, 「A Seeing through Clothes」, 1982.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Y.:Harper & Row, 1965.
-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92.
- Edmund Bergler, 「A Psychoanalyst Look at Women's Clothes」, Cosmopolitan, February 1960.
- Gianni Versace, Omar Calabres, 「Versace Signature」, Abbeville Press. Publisher N.Y., London, Paris.
- James Laver, 「Modesty in Dress」, Boston: Houghton Mifflin, 1969.
- Richard Martin & Harold Koda, 「Infra-apparel」,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 Valerie Steele, 「Fetish」, London: Oxford Univ. Press, 1996.
-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5, chap.9
- Norah Waugh, 「Corset and Crinolines」, N.Y.: Theatre Arts Books, 1970.
- Albert Rosenberg & Robert S. Sobek, 「A Creative Process in the Art of Costume Desig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9 No.1, 1990.
- セシル・サンロウン, 「女性下着の歴史」, 東京: Edition Wacoal, 1989.
- 「SOEN EYE」, No.8 〈下着〉, 東京: 文化學園, 1992.
- 가재창, 「패션디자이너 199」, 서울: 정은도서, 1995
- 김청, 「21세기의 패션」, 서울: 패션문화, 제4호, 1992. 겨울.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7.
- 이소영, 정정호 공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신문화사, 1992.
- 이종승, 「포스트모던 상황 속의 페미니즘 비평」, 서울: 선미술, 1991. 겨울.
-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6.
- 채금석, 「현대복식 미학」, 서울: 경춘사, 1995.
- Maggie Pexton Murray 저. 채금석 역, 「패션 세계 입문」, 서울: 경춘사, 1997.